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체육학석사 학위논문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실수인식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이 승 주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실수인식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권 성 호

이 논문을 체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이 승 주

이승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2월

위 원 장 김 선 진 (인)

부위원장 박 일 혁 (인)

위 원 권 성 호 (인)

국문초록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실수인식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실수인식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한체육회 산하기관에 등록된 청소년 운동선수 3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성취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후 연구의 목적에 맞게 빈도분석, 독립표본 t검증, 일원배치 분산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자료분석 방법을 통해 도출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아목표성향과 자신감에서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종목(단체/개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실수인식에서 종목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 모두 자신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수인식 또한 자신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자신감의 관계에서 실수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실수인식이 높은 집단에서는 과제목표성향, 자아목표성향, 자신감 간의 정적관계가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크기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수인식이 낮은 집단에서는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감이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청소년 운동선수, 성취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
학 번: 2018-21840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 목적 ····· 7
제 3 절 연구 문제 ····· 7
제 4 절 용어의 정의 ····· 8

제 2 장 이론적 배경 ····· 9
제 1 절 스포츠자신감(Sport-confidence) ····· 9
1. 자신감의 정의와 개념 ····· 9
2. 자신감 관련 이론 ····· 10
3. 스포츠자신감(Sport-confidence)의 정의와 모형 ····· 13
4. 스포츠자신감과 운동수행 ····· 15
제 2 절 성취목표성향(Achievement goal orientation) ····· 17
1. 성취목표성향의 개념 및 정의 ····· 17
2. 성취목표성향의 구성요인 ····· 18
3. 스포츠관련 성취목표성향 연구 ····· 20
제 3 절 실수인식(Perception of error) ····· 22
1. 실수인식의 개념 및 정의 ····· 22
2. 실수인식의 구성요인 ····· 24
3. 실수인식 관련 선행연구 ····· 24

제 3 장 연구 방법 ····· 27

제 1 절 연구대상 ····· 27
제 2 절 조사도구 ····· 28
제 3 절 연구절차 ····· 35
제 4 절 자료분석 ····· 35
제 5 절 연구의 윤리적 검증 ····· 36

제 4 장 연구결과 ····· 37
제 1 절 각 변인의 기술통계량 ····· 37
제 2 절 배경변인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 ····· 38
제 3 절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 ····· 43
제 4 절 조절효과 분석을 통한 검증 ····· 47

제 5 장 논의 ····· 51

제 6 장 결론 및 제언 ····· 55
제 1 절 결론 ····· 55
제 2 절 제언 ····· 56

참고문헌 ····· 59
부록 ····· 70
Abstract ····· 74

표 목 차

[표 1] 자신감에 대한 다양한 정의 ····· 10
[표 2] 과제와 자아 성향 목표의 다양한 명칭 ····· 18
[표 3]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집단별 비율 ····· 27
[표 4] 자신감 척도 신뢰도 분석 결과 ····· 29
[표 5] 성취목표성향 척도 신뢰도 분석 결과 ····· 32
[표 6] 성취목표성향 척도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32
[표 7] 성취목표성향 척도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32
[표 8] 실수인식 척도 신뢰도 분석 결과 ····· 33
[표 9] 청소년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의 기초통계량 ····· 37
[표 10] 성별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 ····· 39
[표 11] 종목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 ····· 40
[표 12] 학년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 ····· 41
[표 13] 운동경력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 42
[표 14] 배경변인과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표 44
[표 15] 다중회귀분석 결과표 ····· 45
[표 16] 과제목표성향과 자신감의 관계에서 실수인식의 조절효과 ····· 47
[표 17] 자아목표성향과 자신감의 관계에서 실수인식의 조절효과 ····· 49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 7
[그림 2] 자기효능감 모델 ····· 11
[그림 3] 유능성 동기 모델 ····· 13
[그림 4] 스포츠자신감 모형 ····· 14
[그림 5] 자신감 척도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 30
[그림 6] 성취목표성향 척도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 32
[그림 7] 실수인식 척도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 34
[그림 8] 연구절차 ····· 35
[그림 9] 실수인식의 조절효과 그래프(과제목표성향) ····· 48
[그림 10] 실수인식의 조절효과 그래프(자아목표성향) ····· 50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운동선수들에게 있어 중요한 심리요인 중 하나는 바로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기사나 뉴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많은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의 원동력을 자신감으로 꼽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신감이라는 개념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Bandura(1977)는 자신감을 '어떤 개인이 특정한 결과를 낳기 위하여 요구되는 반응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의 강도'라고 정의 하였으며, Vealey(1986)는 스포츠 상황에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경쟁적인 스포츠 상황에서 갖게 되는 인지적 개념으로 '스포츠 수행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실성의 정도 또는 믿음'을 스포츠자신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자신감은 운동선수들의 최상수행과 관련하여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수 언급되어 왔으며, 선수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인지요인으로 인식되어왔다(Feltz, 1984; Gill, 1986). 따라서 자신감이라는 개념은 스포츠 현장에서 지도자와 연구자들에 의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후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자신감이 선수들의 성공적인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Gould, Weiss, & Weinberg, 1981; Highlen & Bennett, 1979). 나아가 자신감은 운동선수들의 최상수행뿐만 아니라 경쟁 상황에 놓여있는 선수들을 심적으로 안정되게 하며, 노력을 증가시키는 긍정 정서를 유발하는(Jones & Swain, 1995) 등 선수들의 정서, 인지, 행동적 측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감은 선수들이 훈련과 시합상황에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심리적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김원배, 홍준희, 2001; Gould et al, 1980, Highlen & Bennett, 1979), 이러한 자신감은 성인 선수들뿐만 아니라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청소년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시기는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심리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문해진, 2001). 이러한 시기에 자신감은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선수들에게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며, 선수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경기력 향상과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Gould et al, 1981; Krane & Williams, 1994; Weiss, Wiese, & Klint, 1989). 또한 높은 자신감 수준을 가지고 있는 어린 선수들이 좋은 수행력을 보였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바 있다(Treasure, Monson, & Lox, 1996). 앞선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청소년기에 자신감을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은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운동선수의 궁극적 목적인 경기력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스포츠현장에서 자신감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운동선수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특히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자신감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변인들 중 성취목표성향이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자신감을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언급되어 왔다(장세용, 최원민, 강현우, 2015; Hall & kerr, 1997; Vealey, 1998). 여기서 성취목표성향이란 개인이 성취상황에서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며, 자신의 능력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

이냐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자신의 능력을 보이려는 유능성(competence)의 지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능성의 지각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과제성향(task-orientation)과 자아성향(ego-orientation)적인 성취목표로 구분된다(Ames, 1984). 일반적으로 과제목표성향의 선수들은 기술의 숙달과 숙련에 초점을 두어 자신의 이전 수행과의 비교를 통해 얼마나 더 성장했는가에 주목하며,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여 이를 달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경향성을 보인다(Duda & Nicholls, 1989). 반면에 자아목표성향의 선수들은 타인과의 경쟁에 초점을 두어 자신의 수행을 평가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 또는 자신의 능력보다 쉬운 과제를 선택하여 과제에 대한 흥미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Robert, 1997).

성취목표성향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인 성취목표에 따른 유능성의 지각은 스포츠 상황에서 청소년 운동선수의 자신감 형성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Roberts, 1978, 1980; Scanlan, 1982a). Vealey(1998)에 따르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자 하는 유능성의 지각은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주요한 요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청소년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취목표성향과 스포츠자신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볼링선수(이양주, 오승현, 2012). 사격선수(김아름, 2011), 태권도선수(강률, 2013; 설수황, 여인성, 김범준, 2013; 양대승, 2010), 주니어 골프선수(황진철, 2011), 축구(한영웅, 2011) 등 다양한 종목의 청소년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다수의 연구에서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은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을 통한 유능성의 지각은 선수 개인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임과 동시에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발전시켜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Wylleman & Lavallee, 2004).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발전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청소년 운동선수들은 훈련 상황이나 경기 상황에서 크고 작은 실수들을 경험하게 된다. 더욱이 스포츠 상황은 승패가 명확히 구분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나 실패는 선수들에게 있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성창훈, 박상혁, 2012).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실수는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하며(Keith & Frese, 2008), 수행의 어려움을 겪게 하기 때문에(Sideridis, 2005) 교정이 요구되는 즉, 피해야 하는 행동들로 규명되어 왔다(Cannon & Edmondson, 2005; Lannin, Barker, & Townsend, 2007; Reason, 1990). 이처럼 실수에 대한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였으며, 실수가 일어나기 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실수를 다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실수에 대한 부정적 측면만이 아닌 실수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 맞춘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진 실수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이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정서, 인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며(김종백, 2010), 실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성취행동, 근무태도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승패가 명확히 구분되는 스포츠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수에 대한 선수 개인의 인식은 결국 해당 선수의 정서, 인지, 행동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사료된다.

앞서 언급한 실수에 대한 선수 개인의 인식은 실수인식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에서 실수인식이란 사람마다 실수에 대해 지니는 경향성으로(Reason, 1990), 실수를 받아들이는 개인의 태도나 실수를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한 개인적 성향을 의미하기도 한다(Schell & Conte, 2008). 실수인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산업현장과 교육현장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산업현장에서의 연구를 살펴보면, Rybowiak(1999)는 실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기술자들이 더 실험적이고 진취적인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언급하였으며, Hetzner, Gartmeier, Heid와 Gruber(2011)의 연구에서는 실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조직원들의 근무태도와 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교육현장에서의 신종호, 최효식, 연은모(2014)의 연구에 따르면, 실수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학습자가 실수에 대해 도전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를 자신의 수행에 활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실수를 긍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다음 수행에 대한 도전적인 태도와 성취가 높아지는 것을 통해 실수를 긍정적으로 인식 할 경우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자신감과 실수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면, 자신감이 높은 선수는 훈련이나 시합상황에서 발생한 실수나 실패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Bandura, 1994) 반면 자신감이 낮은 선수는 실수나 실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어려운 과제에 대한 회피 등 성취와 관련된 일에 소극적인 모습(박혜주, 김진구, 정상택 2005; Bandura, 1994)을 보였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Orlick(2000)은 실수를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자신감의 수준이 달

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앞선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는 결국 스포츠상황에서 개인이 실수에 대해 지니는 인식은 선수들의 인지적 요인인 자신감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을 종합해보면,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도기적인 발달 시기에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경쟁적인 스포츠상황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인 자신감이 요구되며, 이러한 자신감은 선수들이 목표의 성취를 통해 느끼는 유능감으로 부터 기인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쟁적인 스포츠상황에서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실수에 대한 개인의 지각은 성취목표성향과 자신감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며, 성취목표성향과 자신감의 관계에서 실수인식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성취목표성향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실수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과 실수인식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성취목표성향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실수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져야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제 3 절 연구 문제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1. 배경변인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에 차이는 어떠한가?
2.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제/자아)과 실수인식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자신감의 관계에서 실수인식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제 4 절 용어의 정의

1. 스포츠자신감(Sport-confidence)

해당 종목의 선수들이 자신의 종목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으로 정의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종목에 대한 자신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성취목표성향(Achievement goal orientation)

스포츠상황에서 개인이 생각하는 주관적 성공의 개념에 기초를 두어, 개인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과제목표성향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종목에서 해당 과제에 대한 숙련과 기술의 향상을 추구하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초점을 둔 목표성향이라 정의하였다. 자아목표성향은 해당 종목에 대한 숙련보다는 타인과의 경쟁을 중요시하며, 자신의 능력을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둔 목표성향이라 정의하였다.

3. 실수인식(Perception of error)

경기상황에서 선수들은 원하는 결과를 이룰 때도 있고, 이루지 못할 때도 있다. 이 때 선수들이 바라는 결과의 부재를 실수(error)라고 할 수 있으며(Reason, 1990), 실수인식(perception of error)은 선수 개인마다 실수에 대해 지니는 경향성을 의미한다(Lazarus & Folkman, 1984). 본 연구에서는 Error Orientation Questionnaire(EOQ) 척도에서 실수로부터 학습, 실수에 대한 도전, 실수에 대한 부담, 실수에 대한 고찰의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실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스포츠자신감(Sport-confidence)

1. 자신감의 정의와 개념

자신감(Self-confidence)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생각이 아닌 성공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Weinberg & Gould, 1996).

Bandura(1977)는 자신감을 '어떤 개인이 특정한 결과를 낳기 위하여 요구되는 반응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의 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Bandura(1977)는 개인의 높고 낮은 성취동기를 구별하는 변인으로 자신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감이 높은 선수들이 자신의 성공에 대한 기대가 높고 그에 따른 성취동기도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자신감은 내적동기와 성취동기 등 동기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해석에 의존하며, 새로운 행동을 배우고 유지하는데 있어 인지적인 과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다(최영옥, 1988).

이러한 자신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토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자신감은 아주 근본적인 의미에서 '어떠한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자신감은 단순히 자신의 수행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자신감은 성공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다(Weinberg & Gould, 1996). 스포츠현장에서 자신감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신감은 스포츠현장의 지도자 또는

연구자들에게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자신감은 자기효능감 또는 유능감과 같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왔다(Feltz, 1982, 1988; Highlen & Bennett, 1979; Vealey, 1986).

자신감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여러 문헌에서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원배, 2005), 자신감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Bandura, 1977), 스포츠자신감(Sport-confidence), 움직임 자신감(Movement confidence; Griffin & Keogh, 1982), 지각된 유능감(Perceived competence; Harter, 1978) 등이 있으며, 각 개념의 정의는 아래의 <표-1>과 같다.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자기효능감은 전체적인 수행의 성공을 낙관하는 포괄적 특성 보다는 특정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
움직임 자신감 (Movement confidence)	개인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움직임(협응, 유연성, 숙련, 스피드)들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
지각된 유능감 (Perceived competence)	특정 과제나 스포츠의 성취상황에서 스스로 느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평가
스포츠자신감 (Sport-confidence)	스포츠상황에서 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의 정도

표 1. 자신감에 대한 다양한 정의(스포츠심리학 핸드북, 2005에서 재인용)

2. 자신감 관련 이론

1. 자기효능감 이론

자기효능감 이론은 반두라에 의해서 개념화되었다. 이러한 자기효능감

이론은 사회인지이론에서 기반이 되었으며, 인간의 행동은 개인, 환경, 행동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또한 자기효능감 이론은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스포츠 분야에서도 선수들의 자신감과 관련한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어왔다.

자기효능감이란 유능감이 있고 특정 과제를 성공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을 나타낸다(Bandura, 1977). 따라서 전체적인 운동기능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는 대조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협의의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운동수행을 수행하는데 있어 성공 능력을 갖고 있다는 수행자의 주관적이고 인지적인 자기 지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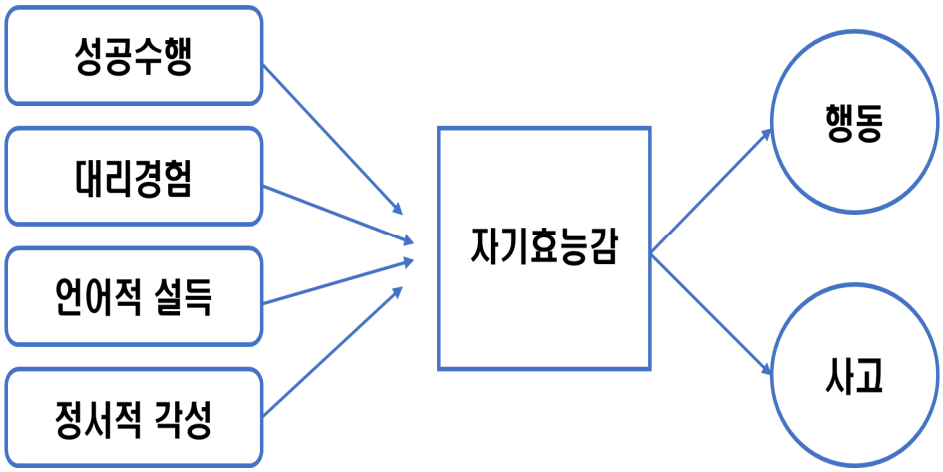

그림 2. 자기효능감 모델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4가지의 정보원을 성공수행,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이라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첫 번째는 성공수행이다. 성공수행은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두라는 성공수행

경험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며, 이후 운동수행에 대한 기대감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강한 자기효능감은 반복되는 성공경험을 통하여 발달되며, 운동수행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andura, 1986).

두 번째로 대리경험은 일종의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타인의 수행을 관찰함으로써 얻어지는 정보를 의미한다. 또한 대리경험은 경험이 부족한 선수에게 있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자신의 체격과 실력이 유사한 선수의 성공적인 수행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언어적 설득은 말로써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언어적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타인의 격려나 칭찬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며, 또한 지속적인 언어적 설득을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칭찬과 격려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언어적 설득은 구체적인 피드백과 함께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Bandura, 1997).

마지막으로 정서적 각성은 실제 자신의 생리적 상태에 반하는 감정적 각성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즉, 불안, 두려움, 의심등과 같은 정서적 반응을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에 의해 자기효능감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정서적 각성은 자기효능감에 가장 영향을 적게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체활동이 요구되는 스포츠에서는 선수들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원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Wilson, Feltz, & Fitzpatrick, 1996).

2. 유능성 동기이론

Harter(1978)의 유능성 동기이론은 White(1959)의 효과동기 이론 이후 제안된 이론으로 Harter는 운동선수의 개인적 유능감을 기초로 개인은

인간 성취의 모든 영역에서 선천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스포츠라는 성취영역에서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유능함을 느끼기 위해 숙련되려는 시도를 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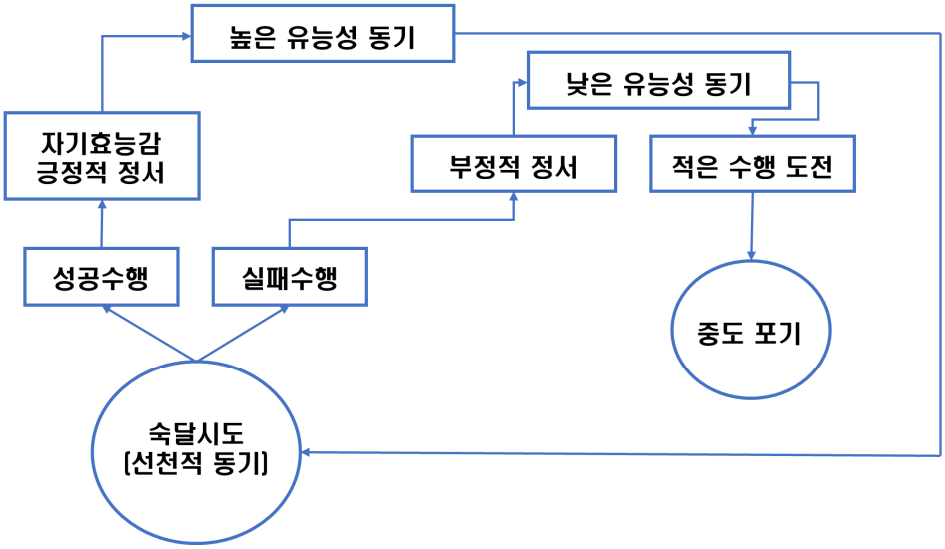

그림 3 유능성 동기모델

위에 그림과 같이 운동선수들이 숙련에 대한 성공수행은 자기효능감과 긍정적 정서를 촉진시키고 그 결과 높은 유능성 동기를 갖게 한다. 높은 유능성 동기는 다시금 선수들로 하여 새로운 과제에 대한 숙달시도를 하게 한다. 반면, 운동선수들의 숙달시도가 실패로 지각된다면, 이는 선수들에게 있어 부정적 정서를 일으켜 선수들이 숙련되고자 하는 유능성 동기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결과 선수들이 운동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3. 스포츠자신감(Sport-confidence)의 정의와 모형

스포츠 자신감(sport-confidence)은 Vealey(1986)가 처음으로 사용한 개

념적 용어로 기존의 일반적인 자신감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스포츠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갖게 되는 인지적 개념으로 '스포츠 수행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 확실성의 정도 또는 믿음'이라고 정의되어 진다(Vealey, 1986, 1988). Vealey(1986)의 스포츠자신감 이론은 스포츠에서의 자신감과 성취동기를 개념화한 독특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Vealey(1986)는 스포츠자신감을 특성스포츠자신감과 상태스포츠자신감으로 나누어 개념화하였는데 먼저, 특성스포츠자신감의 개념을 살펴보면 '개인이 스포츠에서 갖는 그의 능력이 성공적일 것이라는 확실성에 대한 신념 또는 정도'로 정의되며, 상태스포츠자신감은 '개인이 스포츠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순간에 갖는 그의 능력이 성공적일 것이라는 확실성에 대한 신념 또는 정도'로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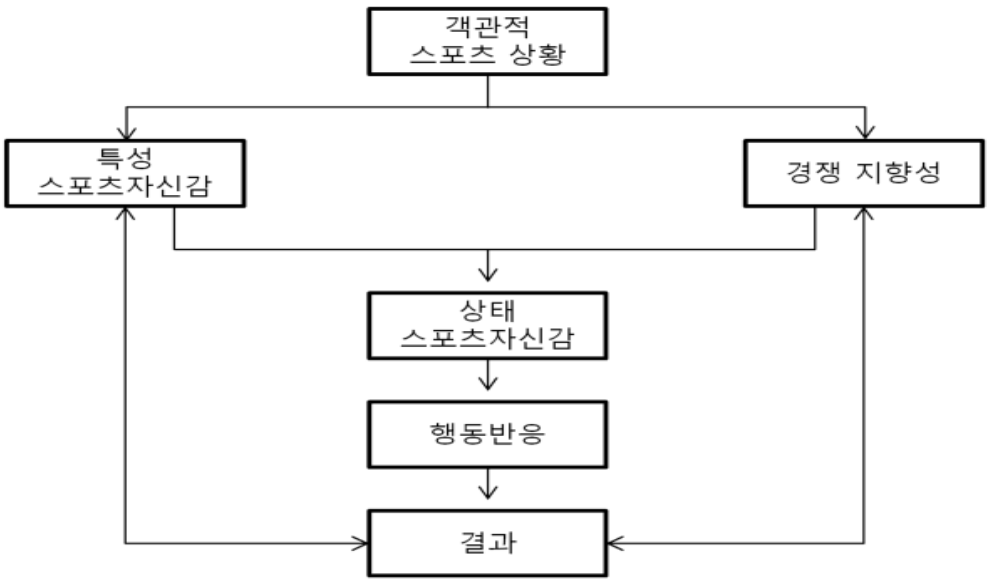

그림 4. 스포츠자신감 모형(Vealey, 1986)

또한 Vealey(1986)는 스포츠자신감 이론에서 경쟁지향성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였는데, 여기서 경쟁지향성이란 '자신의 목표달성이 자신의 훌륭한

수행과 성공을 반영한다는 믿음의 정도'를 나타낸다. 즉 경쟁지향성은 경기상황에서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의미하며, 이를 토대로 Vealey(1986)는 스포츠자신감 모형을 제안하였다.

Vealey는 같은 객관적 스포츠상황에서 특성스포츠자신감과 경쟁지향성이 높은 선수가 더 높은 상태스포츠자신감을 보이며, 전자와는 반대로 특성스포츠자신감과 경쟁지향성이 낮은 선수는 낮은 상태스포츠자신감을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스포츠자신감 모형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태스포츠자신감은 상태스포츠자신감이 나타나는 객관적인 스포츠상황에서 특성스포츠자신감과 경쟁지향성의 상호작용에 의해 상태스포츠자신감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상태스포츠자신감은 운동수행 또는 선수의 행동반응을 예견하며, 상태스포츠자신감에 의해 나타난 행동반응은 결과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하게 한다. 이러한 주관적 지각의 예로는 자신의 운동수행 만족도, 성공의 지각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행동반응으로 인해 나타난 주관적인 결과는 선수의 경쟁지향성과 특성스포츠자신감에 다시 영향을 주기도 하며, 반대로 다시 영향을 받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스포츠자신감 모형에서 나타난 주관적 결과는 스포츠자신감, 경쟁지향성 및 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스포츠자신감과 운동수행

자신감은 1980년대부터 스포츠 현장에 있는 지도자와 연구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아왔으며, 선수들의 최상수행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심리 요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 되어왔다. 또한 이러한 자신감은 스포츠상황에서 선수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인지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Feltz, 1984; Gill, 1986).

일반적으로 자신감을 주제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운동수행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다수이다.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자신감은 운동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공을 경험한 선수들이 그렇지 못한 선수보다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ighlen & Bennett, 1979), Mahoney와 Avener(1977)의 연구에 따르면, 1976년에 미국 올림픽 체조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예선을 통과한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의 자신감 수준을 비교하였을 때 예선을 통과한 체조선수들의 자신감 수준이 그렇지 못한 선수들보다 더 높았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성공적인 선수와 성공적이지 못한 선수간의 구별을 통해 자신감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1970년에서 1980년대에 많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감이 경기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경기결과와 관련하여 메타분석 연구를 실시한 결과 자신감은 경기성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감의 수준은 경기 전, 경기 중, 경기 후의 단계에 따라 변화하고 이러한 자신감 수준을 잘 유지하는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며 불안을 잘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raft, Magyar, Becker, & Feltz, 2003).

제 2 절 성취목표성향(Achievement goal orientation)

1. 성취목표성향의 개념 및 정의

목표(goal)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의식적으로 달성하거나 성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는 보편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내용(content)과 강도(intensity)가 바로 중요한 두 가지의 속성이라 할 수 있으며, 내용(content)은 개인이 축구하는 목적 및 결과를 의미하며, 강도(intensity)는 개인이 바라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였느냐를 의미한다(Burton, 1993). 이러한 목표와 관련된 성취목표성향이론은 인지적,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Duda, 1992). 성취목표성향 이론에서는 개인의 성취행동이 결정되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근본적인 개념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스포츠 경쟁상황 속에서 개인이 목표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성취행동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그 의미와 해석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였다(Nicholls, 1984, 1989, Ames, 1984).

성취목표성향이론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자 하는 유능성(competence)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능성의 기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과제(task)와 자아(ego) 지향적인 성취목표로 스스로의 노력을 정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성취목표성향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과제(task)와 자아(ego) 목표의 이분법적인 구조로 이해되기 시작하였으며(Ames, 1984), 이후 과제와 자아 성향의 목표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명칭으로 정의되어 왔다. 하지만 크게 과제(task))와 자아(ego) 두 가지의 목표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과제와 자아성향 목표의 다양한 명칭들은 다음의 <표-2>와 같다.

연구	과제목표	자아목표
Nicholls(1984) Maehr(1983) Patashnick & Nolen(1985)	과제관련 (task-involved)	자아관련 (ego-involved)
Ames & Archer(11988)	숙련(mastery)	수행(performance)
Ames(1992)	숙련(mastery)	수행(performance)
Roberts(1992)	숙련(mastery)	경쟁(competitiveness)
Elliot & Dweck(1983) Papaionnou(1994) Dweck & Leggett(1988)	학습(learning)	수행(performance)
Ames & Ames(1984)	숙련목표 (mastery goal)	능력목표 (ability goal)

표 2. 과제와 자아성향 목표의 다양한 명칭(스포츠심리학 핸드북, 2005에서 재인용)

2. 성취목표성향의 구성요인

(1) 과제목표성향

과제목표성향은 과제 자체의 숙련 또는 향상을 추구하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 스스로의 과제 수행을 과거 자신의 수행과 비교하여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목표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제목표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보다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인 스스로가 설정한 기준을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추수진, 2011).

이에 Nicholls(1989)는 과제목표성향은 자기 자신이 비교의 기준이 되며, 이에 따라 자신의 기술이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스로의 노력을 기울였을 때 유능함을 느끼고 이를 통해 성공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개인의 특성이라 언급하였다. 따라서 과제목표성향을 가진 사람은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입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과제의 숙련과 학습에 중점을 두어 자신의 과거 수행과 비교하여 자신의 기술 및 능력향상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박철우, 2009; 추수진, 2011). 또한 선수들의 과제목표성향은 선수들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Duda와 Chi(1989)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의 주요타자인 감독이나 코치, 동료 또는 부모들에 의해 형성되는 상황적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 동기분위기는 선수들의 과제목표성향 또는 자아목표성향을 형성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2) 자아목표성향

자아목표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과제목표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비교의 기준을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자신의 능력이 월등하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Nicholls, 1989). 자아성향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이 자신과 비슷한 수행력을 보였을 때, 자신의 능력이 다른 선수들보다 뛰어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 비해 적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정청희, 김병준, 1999). 이는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고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자 하는 유능감이나 성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같은 수행력을 보이는 선수들에 비해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배진희, 2010).

또한 원주연, 김윤태(1998)는 자아목표성향을 가진 선수들이 스포츠 상황에서 중도포기와 부정적 행동유형을 나타낼 수 있으며, 자신이 잘하지

못했을 경우 변명의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 다른 특성으로는 자아목표성향을 가진 이들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자신의 능력으로는 수행하기 힘든 어려운 과제를 선택하거나 자신의 능력에 비해 쉬운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하였다(Robert, 1997).

3. 스포츠관련 성취목표성향 연구

스포츠상황 속에서 성취목표성향과 관련한 연구는 Nicholls(1984)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스포츠상황에서의 성취목표성향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경쟁적인 스포츠상황에서 성취목표의 유형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개개인의 목표성향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운동에 참여하고 지속하는데 있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창훈, 1995).

앞서 언급했듯이 경쟁적인 스포츠상황 속에서 다양한 성취목표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는 유능성이 선수들에게 있어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Roberts, 1992a). Duda(1993)와 Nicholls(1984)의 연구에 따르면, 성취목표성향과 지각된 유능감은 개인의 성취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ealey(1998)는 성취목표를 통한 유능성의 지각은 운동선수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주요한 원천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성취목표성향은 스포츠 상황에서 선수들의 자신감에 영향을 주며 선수들의 궁극적 목적인 최상수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언급되고 있다(안주미, 2007).

성취목표성향과 운동수행과 관련한 또 다른 연구를 살펴보면, 앞서 언

급하였듯이 성취목표성향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당 선수들 둘러싼 감독, 코치 또는 부모 그리고 동료선수들에 의해 형성되는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의 향상이나 선수의 노력, 과정을 중요시 하는 분위기에서의 선수들이 경쟁이나 타인과의 비교, 결과를 중요시 하는 분위기의 선수들보다 적응적 행동패턴을 보이며, 동기화된 사고와 감정 등 과제목표성향을 보인다고 언급하였다(정청희, 문창운, 1998).

또한 과제목표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자신의 유능감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적응적 행동패턴을 보이는데, 여기서 적응적 행동패턴이란 자신이 도전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과제를 선택하며 해당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부적응적 행동패턴은 과제에 대한 흥미 또는 지속성이 감소하여, 성취상황에서의 무능감 등을 의미한다(Duda, 1993; Roberts, 1992a, 1992b). Duda와 Nicholls(1992)의 연구에서는 성취목표성향과 성공신념에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과제목표성향의 선수들은 자신의 성공 원인을 노력에 귀인 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자아목표성향의 선수들은 성공의 원인을 자신의 뛰어난 능력에 귀인 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제 3 절 실수인식(Perception of Error)

1. 실수인식의 개념 및 정의

우리들은 스포츠 선수들의 크고 작은 실수가 경기 전체의 결과 또는 해당 선수의 심리적, 행동적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뉴스 기사나 매체 영상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하나의 예시로 2017-2018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경기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리버풀의 골키퍼인 로리스 카리우스는 자신의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 실점을 하게 되자 이전과는 다르게 소극적인 플레이를 보이며,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또 한 번의 실수로 이어져 상대팀인 레알 마드리드에게 추가골을 내어주게 되었고, 결국 궁극적인 팀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 경기가 끝난 후 카리우스는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며 팬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앞선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경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크고 작은 실수는 해당 선수의 행동, 인지, 정서적인 측면은 물론 나아가 경기 결과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스포츠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실수를 선수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는 다음 수행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실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Reaseon(1990)은 개인이 설정한 목표와 바라는 결과의 부재를 실수(error)라고 정의하였으며, 개인마다 실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향성을 실수인식(perception of error)이라고 하였다(Lazarus & Folkman, 1984). 또는 실수를 받아들이는 개인의 태도나 실수를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한 개인적 성향을 의미하기도 한다(Schell & Conte, 2008).

이러한 실수는 행동주의심리학자들에 의해 부정적인 측면에서 정의 되

어왔다. 이러한 실수는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키며(Keith & Frese, 2008), 수행의 어려움을 겪게 하기 때문에(Sideridis, 2005) 교정이 요구되는 행동으로 즉, 피해야하는 행동들로 정의되어왔다(Cannon et al., 2005; Lannin et al., 2007; Reason, 1990). 행동주의심리학자들에 의해 정의된 실수는 실수의 부정적 측면만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실수는 일어나서는 안 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실수를 다루어왔다(Norman, 1993).

실수에 대한 초기 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초기 연구는 주로 산업현장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산업현장에서는 실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다루는가에 의해서 해당 조직의 이익 또는 손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실수를 바라보았는데, 첫 번째 관점은 관료적인 문화(bureaucratic cultures)로서 실수는 일어나서는 안 되며,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실수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조직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관점은 창업가적 문화(entrepreneural cultures)로서 실수의 부정적 측면이 아닌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수로부터 배우고 이를 토대로 성장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실수는 사전에 방지하고 제거되어야 하는 행동인 부정적 측면의 실수가 아니라 실수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실수의 교육적 가치의 중점을 두는 관점으로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산업현장에서의 연구는 실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실수의 긍정적 측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2. 실수인식의 구성요인

실수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Rybowiak과 동료들(1999)의 의해 개발되었으며, EOQ(error orientation questionnaire) 측정도구는 산업현장에서 실수에 대한 경향성을 8가지의 하위요인으로(error competence, learning from errors, error strain, error anticipation, error communication, thinking about errors, error risk taking, covering up errors,) 나누어 제시하였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신종호, 최효식, 연은모(2014)에 의해 수정 번안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연구가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종호 등에 의해 수정 번안된 측정도구의 구성 요인을 살펴보면, '실수로부터 학습', '실수에 대한 도전적 태도', '실수에 대한 부담', '실수에 대한 고찰'로 4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위에 제시된 4가지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실수로부터 학습'은 실수로부터 배우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실수에 대한 도전적 태도'는 실수 발생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실수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통해 변화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실수에 대한 부담'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의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수에 대한 고찰'은 발생한 실수에 대해 신중히 고찰하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연은모, 2014; Rybowiak, et al., 1999).

3. 실수인식 관련 선행연구

실수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산업현장과 교육현장에서 연구가 실시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산업현장에서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산업현장에서 실수를 어떻게 다루는가는 조직의 이익 또는 손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실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수의 긍정적 인식의 제고와 더불어 실수의 긍정적 측면을 활용하는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Bauer & Mulder, 2013; Kapur, 2012; Wuttke & Seifried, 2012). 또한 실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 Rybowiak 등의 연구(1999)를 살펴보면, 조직에 형성되어 있는 실수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는 기술자들의 실험적이고 진취적인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Hetzner(2011) 등의 연구에서는 조직 내에 발생하는 실수가 개인 능력의 발전과 조직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실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물론 조직원들의 근무태도와 성취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산업현장이 아닌 교육현장에서 실시 된 실수인식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실수는 학습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실수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김종백, 2010), 실수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신종호 등(2014)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교목표구조, 개인목표성향 및 학업적 자기평가와 실수인식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개인의 성취목표가 학습자의 실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신종호, 최효식, 연은모, 홍윤정 2015).

또한 연은모(2019)는 교실목표구조와 피드백 유형이 학습자의 실수인식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육현장에서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숙달목표구조를 가지고 있는 학급에서 실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개인적으로는 숙달목표를 지향하는 학습자들이 실수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육현장에서 실수에 대한 연구는 학습자 개인의 실수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인 특성을 비롯한 환경적 측면을 포함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스포츠 현장에서 운동선수들에 대한 실수 관련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관련 실수인식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신준하(2019)는 대학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지각된 코칭 스타일과 성장 마인드셋, 실수인식, 그릿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치들의 자율성지지 코칭행동이 성장 마인드셋과 실수인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준하, 허진영(2018)은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스포츠자신감 및 자기관리 능력이 실수인식 간의 관계에서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취목표성향이 자기관리를 매개하여 실수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신연지(2019)의 연구에서는 축구동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참여 동기가 실수인식 및 대인관계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스포츠상황에서 실수인식에 대한 연구는 질적으로는 물론 양적으로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승패가 명확히 구분된다는 특성을 가진 스포츠 현장에서 실수는 훈련 상황이나 경기 상황에 있어서 선수들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선수들의 행동, 인지, 정서적 측면은 물론 경기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수들이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실수를 받아들이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무엇이며, 최종적으로 이러한 실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3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표 3.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집단별 비율

특성	구분	인원	백분율(%)
성별	남자	218	72.7%
	여자	82	27.3%
단체종목(154)	축구	70	23.3%
	하키	10	3.3%
	배구	23	7.7%
	야구	36	12%
	농구	15	5%
개인종목(146)	테니스	25	8.3%
	탁구	22	7.3%
	역도	11	3.7%
	유도	44	14.7%
	태권도	30	10%
	육상	14	4.7%
학년	중1	47	15.7%
	중2	57	19%
	중3	58	19.3%
	고1	56	18.7%
	고2	46	15.3%
	고3	36	12%
운동경력	1-3년	84	29.3%
	4-6년	139	46.3%
	7년 이상	77	24.3%
전체		300	100%

본 연구의 참여대상자는 유의적 표집법(purposive sampling)및 집락표집법(cluster sampling)을 적용하여 대한체육회 산하 기관에 등록된 중·고교 소속 운동선수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초기에 연구의 모형과 측정도구의 요인분석을 위해 200-300부의 표본 수가 필요하다는 권고사항(MacCallum, Zhang, Preacher & Rucker, 1999; 박일혁, 엄한주, 이기봉 2014)과 완료된 설문의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될 자료를 고려하여 최초 400명의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총 343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43명의 설문을 제외한 총 300부의 설문을 연구의 분석 자료로써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에 활용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집단별 비율은 위의 <표-3>과 같다.

제 2 절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실수인식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세 변인의 측정도구인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각 척도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에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MLM)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홍세희(2000)가 제시한 적합도 지수를 근거로 하여 산출된 X^2 통계량, CFI, TLI, RMSEA 값에 대한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CFI 값과 TLI 값은 .9이상이면 적합한 수준이라 해석할 수 있으며, RMSEA 값이 .05면 좋은 적합도, .05-.08 사이는 괜찮은 수준, .10이하는 수용 가능한 정도의 적합도라고 해석하였다.

1. 자신감 측정도구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자신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Vealey(1998)에 의해서 개발되어진 스포츠자신감 질문지를 김원배(1999)가 번안하여 고등학교, 대학교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 확인 작업을 거쳐 타당화된 한국판 스포츠자신감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능력입증, 사회적지지, 코치 지도력, 신체적/정신적 준비를 포함하여 4개의 하위요인으로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점수는 5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 5: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자신감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총 300부의 자료를 활용하여 1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X^2 = 179.734(d.f.=84, $p<.001$), TLI=.914, CFI=.932, RMSEA=.065로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종 자신감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코치지도 .804, 능력입증 .780, 신체/정신적 준비 .769, 사회적지지 .696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자신감 척도 신뢰도 분석 결과

구성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코치지도	3, 5, 8, 12	4	.804
능력입증	4, 7, 9, 13	4	.780
신체/정신적 준비	1, 6, 10, 14	4	.769
사회적지지	2, 11, 15	3	.6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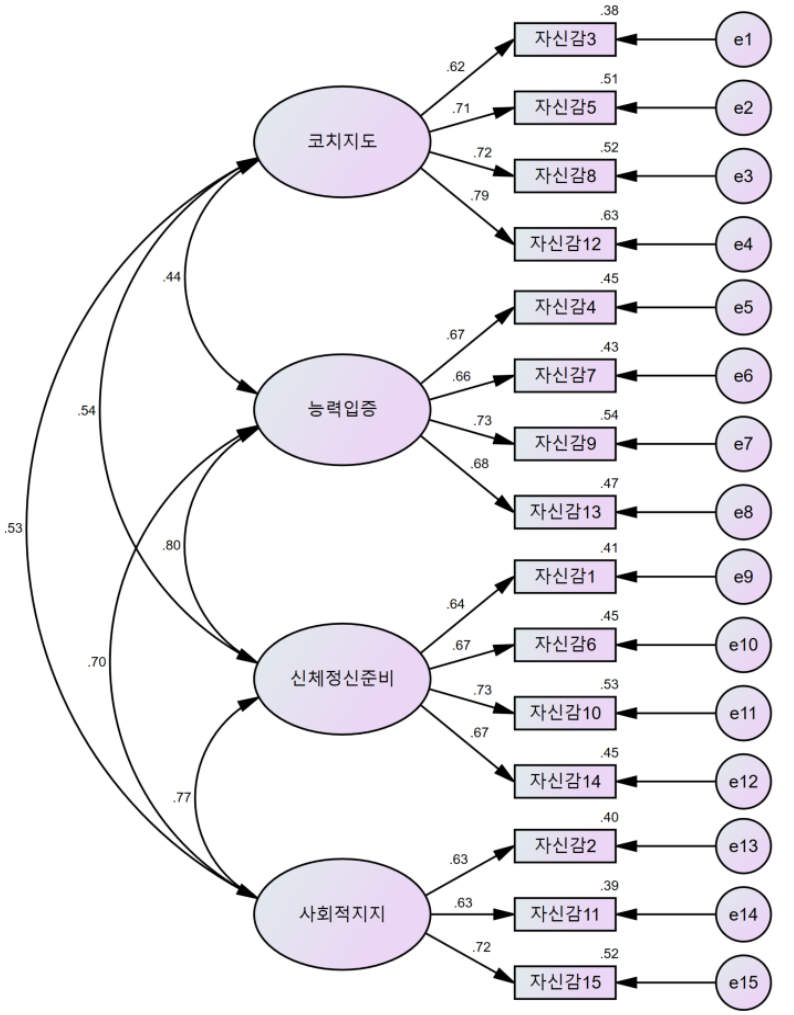

그림 5. 자신감 척도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2. 성취목표성향 측정도구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Duda(1992)에 의해 개발되어진 스포츠 목표성향 질문지를 김병준(2001)이 번안하여, 중학교 남녀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한국판 성취목표성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을 포함하여 2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뉘며, 과제목표성향 7문항, 자아목표성향 6문항으로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점수는 5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 5: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성취목표성향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총 300부의 자료를 활용하여 1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X^2 = 202.536(d.f.=64, p=.000), TLI=.859, CFI=.884, RMSEA=.085로 나타났다. TLI와 CFI, RMSEA의 값이 모두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요인부하량이 .05보다 낮은 과제목표성향 2문항(5번, 13번)과 자아목표성향 2문항(1번, 4번)으로 총 4문항을 삭제하였다. 이후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X^2 = 74.378(d.f.=26, p<.001), TLI=.911, CFI=.936, RMSEA=.079로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종 성취목표성향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과제목표성향 .815, 자아목표성향 .732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성취목표성향 척도 신뢰도 분석 결과

구성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과제목표성향	2, 7, 8, 10, 12	5	.815
자아목표성향	3, 6, 9, 11	4	.732

표 6. 성취목표성향 척도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TLI	CFI	RMSEA
성취목표성향	.859	.884	.085

표 7. 성취목표성향 척도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TLI	CFI	RMSEA
성취목표성향	.911	.936	.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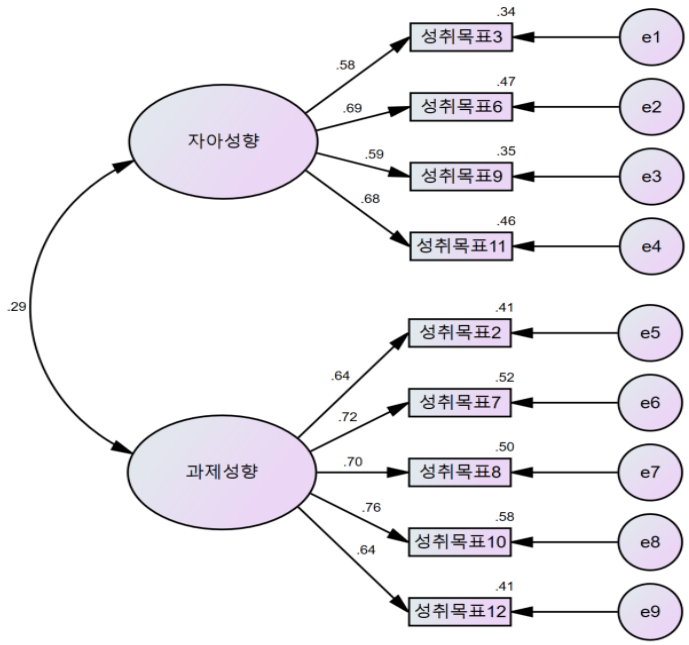

그림 6. 성취목표성향 척도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3. 실수인식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실수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Rybowiak와 동료들(1999)에 의해서 개발되어진 EOQ(Error orientation questionnaire)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신종호 등(2014)이 수정 번안한 도구를 신준하 등(2018)의 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실수로부터 학습, 실수에 대한 고찰, 실수에 대한 부담, 실수에 대한 도전적 태도 등 4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며,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점수는 5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 5: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실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수인식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총 300부의 자료를 활용하여 1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X^2 = 254.467(d.f.=129, p<.001), TLI=.929, CFI=.940, RMSEA=.057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종 실수인식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실수학습 .890, 실수도전 .731, 실수부담 .787, 실수고찰 .819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실수인식 척도 신뢰도 분석 결과

구성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실수학습	1, 2, 3, 4	4	.890
실수도전	5, 6, 7, 8	4	.731
실수부담	9, 10, 11, 12, 13	5	.787
실수고찰	14, 15, 16, 17, 18	5	.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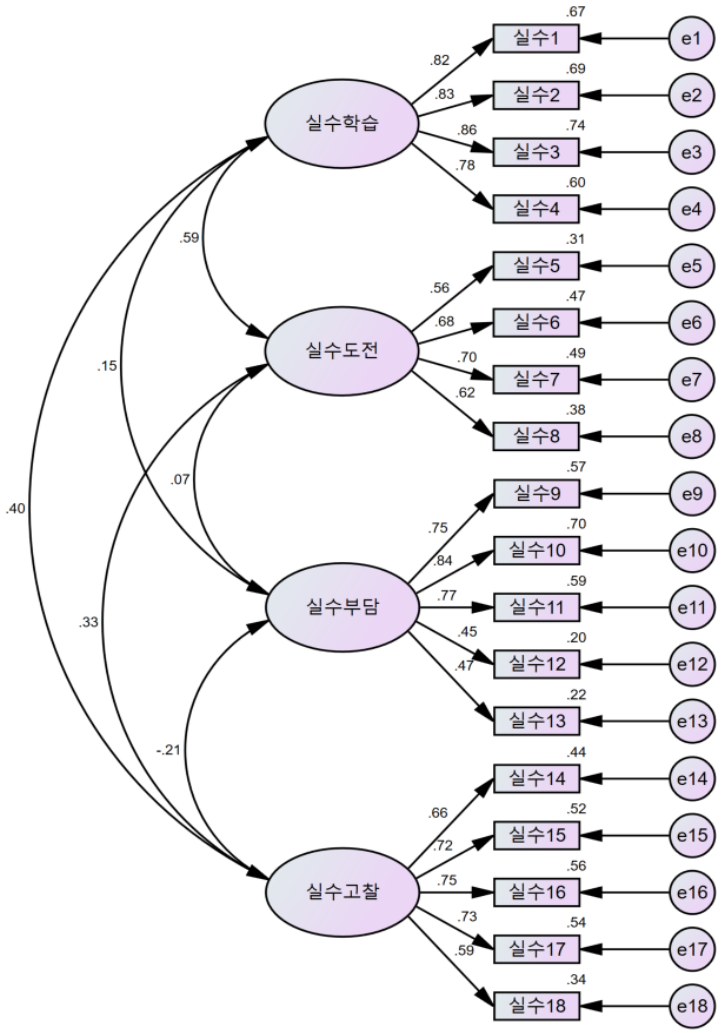

그림 7. 실수인식 척도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제 3 절 연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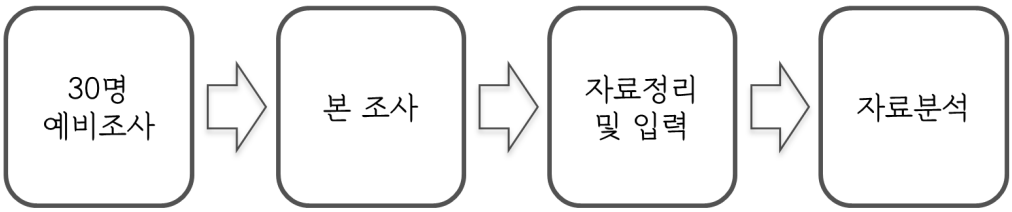

그림 8.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SNUIRB)에서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최초 청소년 운동선수 30인에게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한 후 설문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본 조사 343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응답이 불성실하고 자료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43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300부의 자료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7월 24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연구대상자들이 소속된 각 학교에 직접 방문을 하여 실시하였다. 설문방법은 설문지를 통해 응답자들이 직접 기입하는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완성된 설문지는 회수하여 코딩절차에 따라 코딩을 실시하였다.

제 4 절 자료분석

설문지의 응답이 완료된 자료들을 회수하여,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없어 연구의 자료로써 활용할 수 없는 자료들을 제외시켰으며, 분석이 가능한 자료들은 코딩 지침에 따라 컴퓨터에 개별 입력을 시킨 후 전산처리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분석은 SPSS 23.0,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수집된 자료의 전반적 특성(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사용한 척도의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위해 내적합치도 분석(Cronbach' a)을 실시하였다.
3) 인구통계학적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4) 변인 간의 영향관계 검증을 위해서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5 절 연구의 윤리적 검증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모집에서부터 연구 진행과정, 연구방법 등에 대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로부터 검토 후 승인(IRB NO. 1907/003-016)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자들과 보호자에게 IRB의 승인 내용과 연구 참여자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모든 절차는 SNUIRB에서 제시한 연구윤리 준수 규정에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 4장 연구결과

제 1 절 각 변인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분석한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성취목표성향 2요인, 실수인식 4요인, 자신감 4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다음의 <표-9>와 같다.

표 9. 청소년운동선수의 성취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의 기초통계량 (N=300)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성취목표 성향	과제목표성향	3.94	0.62	-.212	-.318
	자아목표성향	3.33	0.74	-.123	-.283
실수인식	실수학습	3.89	0.71	-.466	.483
	실수도전	3.90	0.65	-.077	-.414
	실수부담	2.86	0.76	.090	-.217
	실수고찰	3.71	0.59	.108	.202
자신감	코치지도	3.82	0.67	-.102	-.069
	능력입증	3.99	0.64	-.442	.737
	신체/정신적 준비	4.11	0.59	-.193	-.714
	사회적지지	4.16	0.60	-.359	-.253

본 연구에서 분석한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성취목표성향의 경우 과제목표성향(M=3.94, SD=.62)이 자아목표성향(M=3.33, SD=.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수인식의 경우 4개의 하위요인 중 실수에 대한 도전(M=3.90, SD=.6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수로부터 학습(M=3.89, SD=.71), 실수에 대한 고찰

(M=3.71, SD=.59), 실수에 대한 부담(M=2.86, SD=.76)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신감의 경우는 사회적 지지(M=4.16, SD=.6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정신적 준비(M=4.11, SD=.59), 능력입증(M=3.99, SD=.64), 코치지도(M=3.82, SD=.67)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측정 변수들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왜도는 3점 이상, 첨도는 10점 이상인 경우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에 대한 왜도와 첨도의 값을 확인한 결과,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배경변인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

본 연구에서 선정한 배경변인은 성별, 종목, 학년, 운동경력이다. 배경변인에 따른 성취목표성향과 실수인식, 자신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1. 성별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

성별에 따른 성취목표성향과 실수인식 그리고 자신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10>과 같다.

표 10. 성별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 (N=300/남:218, 여:82)

변인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p
과제목표성향	남자	3.91	0.63	-1.126	.261
	여자	4.00	0.58		
자아목표성향	남자	3.43	0.74	3.707	.001
	여자	3.08	0.67		
실수인식	남자	3.56	0.43	.359	.720
	여자	3.54	0.34		
자신감	남자	4.04	0.48	2.043	.042
	여자	3.91	0.49		

성별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아목표성향(t=3.707, p<.001)과 자신감(t=2.043,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아목표성향과 자신감 요인에서 여자선수 보다 남자선수가 모두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종목(단체/개인)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

종목(단체/개인)에 따른 성취목표성향과 실수인식, 자신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11>과 같다.

표 11. 종목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 (N=300 /단체:154, 개인:146)

변인	종목	평균	표준편차	t	p
과제목표성향	단체	3.95	0.62	.303	.762
	개인	3.93	0.62		
자아목표성향	단체	3.28	0.76	-1.345	.180
	개인	3.39	0.71		
실수인식	단체	3.63	0.43	3.229	.001
	개인	3.48	0.36		
자신감	단체	4.04	0.48	.989	.323
	개인	3.98	0.50		

종목(단체/개인)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실수인식 요인(t=3.229,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단체종목에 선수들이 개인종목에 선수들보다 실수인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실수인식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학년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

학년에 따른 성취목표성향과 실수인식 그리고 자신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12>와 같다.

표 12. 학년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 (N=300)

종속변수	구분	학년 구분					
		중1 (n=47)	중2 (n=57)	중3 (n=58)	고1 (n=56)	고2 (n=46)	고3 (n=36)
과제목표 성향	평균	3.93	3.74	4.01	4.02	4.04	3.89
	표준편차	0.93	0.89	0.74	0.77	0.91	.104
	F	1.862					
	Tukey's test	-					
자아목표 성향	평균	3.34	3.20	3.37	3.41	3.36	3.32
	표준편차	0.73	0.81	0.72	0.68	0.67	0.83
	F	0.531					
	Tukey's test	-					
실수인식	평균	3.51	3.63	3.59	3.50	3.56	3.54
	표준편차	0.40	0.47	0.44	0.32	0.36	0.43
	F	0.788					
	Tukey's test	-					
자신감	평균	3.99	3.89	4.09	4.11	3.97	3.97
	표준편차	0.48	0.47	0.54	0.50	0.44	0.48
	F	1.567					
	Tukey's test	-					

학년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년에 따른 성취목표성향과 실수인식, 자신감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을 살펴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청소년 운동선수들은 자아목표성향보다는 높은 과제목표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운동경력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

운동경력에 따른 성취목표성향과 실수인식, 자신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운동경력은 3개의 집단(1-3년 / 4-6년 / 7년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13>과 같다.

표 13. 운동경력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 (N=300)

종속변수	구분	운동경력 구분		
		1-3년 (n=84)	4-6년 (n=139)	7년 이상 (n=77)
과제목표 성향	평균	3.96	3.91	3.96
	표준편차	0.67	0.60	0.59
	F		0.282	
	Tukey's test		-	
자아목표 성향	평균	3.40	3.31	3.31
	표준편차	0.72	0.75	0.74
	F		0.439	
	Tukey's test		-	
실수인식	평균	3.53	3.56	3.57
	표준편차	0.42	0.41	0.39
	F		0.224	
	Tukey's test		-	
자신감	평균	4.02	4.03	3.96
	표준편차	0.53	0.49	0.44
	F		0.545	
	Tukey's test		-	

운동경력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운동경력에 따른 성취목표성향과 실수인식, 자신감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전체적인 경향성을 살펴보았을 때, 자아목표성향보다 과제목표성향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실수인식과 자신감 요인에서는 운동경력에 따른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 3 절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

1. 배경변인과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배경변인과 측정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14>와 같다.

먼저 종속변인인 자신감은 독립변인인 성취목표성향(과제/자아), 실수인식(과제성향:r=.493, p<.01 / 자아성향:r=.333, p<.01 / 실수인식:r=.354, p<.01)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인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r=.213, p<.01) 사이에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실수인식과 과제목표성향에서도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배경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별은 자아목표성향(r=-.210, p<.01)과 자신감(r=-.118, p<.05) 사이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표 14. 배경변인과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표 (N=300)

변인	성별	운동경력	학년	과제목표성향	자아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
성별	-						
운동경력	0.267**	-					
학년	0.258**	0.424**	-				
과제목표성향	0.065	-0.020	0.071	-			
자아목표성향	-0.210**	-0.025	0.035	0.213**	-		
실수인식	-0.021	-0.019	-0.023	0.307**	0.064	-	
자신감	-0.118*	-0.070	0.027	0.493**	0.333**	0.354**	-

1. 운동경력은 1~3년, 4년~6년, 7년 이상으로 나누어 코딩을 실시하였음.
2. 학년은 중1=1, 중2=2, 중3=3, 고1=4, 고2=5, 고3=6으로 코딩을 실시하였음.

*p<.05, **p<.01

2. 다중회귀분석 결과

상관관계 결과를 바탕으로 종속변수인 자신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변수가 투입될 때마다 유의성을 검증하는 단계선택법(stepwise selection)을 사용하여, 최종 회귀모형의 예측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표는 다음의 <표-15>와 같다.

표 15. 다중회귀분석 결과표 (N=300)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VIF
		B	SE	β		
자신감	(상수)	1.366	0.234	-	5.850***	-
	과제목표성향	0.295	0.040	0.373	7.378***	1.152
	자아목표성향	0.159	0.032	0.239	4.950***	1.048
	실수인식	0.268	0.059	0.224	4.520***	1.104
	R^2=0.585, Adjusted R^2=0.336, F=51.429***					

***p<.001

분석 결과표를 살펴보면, 자신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58.5%이며, 예측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는 과제목표성향(β=.373), 자아목표성향(β=.239), 실수인식(β=.22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

과,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1.048~1.152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Tolerance Limit: TOL)는 .868~1.000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Durbin-Watson 값 또한 1.866으로 나타나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다고 간주할 수 있어 해당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 4 절 조절효과 분석을 통한 검증

1.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 중 과제목표성향과 자신감의 관계에서 실수인식의 조절효과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과제목표성향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수인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16>과 같다.

표 16. 과제목표성향과 자신감의 관계에서 실수인식의 조절효과 (N=300)

구분		자신감				
		β	t	R^2	$\triangle R^2$	$\triangle F$
1	과제성향	.390	9.780***	.243	-	95.644***
2	과제성향	.335	8.247***	.288	.045	18.881***
	실수인식	.268	4.345***			
3	과제성향	.333	8.295***	.308	.020	8.391**
	실수인식	.274	4.494***			
	과제성향×실수인식	-.256	-2.897**			

**p<.01, ***p<.001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과 공차한계(Tolerance: TOL)의 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VIF 값은 1.000 ~ 1.107로 나타났고, TOL의 값은 .903 ~ 1.000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Durbin-Watson 값은 1.903로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다고 간주할 수 있어 해당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제목표성향이 자신감에 미치는 관계에 있어서 실수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표-16>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R^2은 모형1에서 24.3%, 모형2에서는 28.8%, 모형3에서는 30.8%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항이 투입된 3단계에서는 30.8%로 설명량이 유의하게 증가(ΔR^2=.020, p<.01)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과제목표성향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수인식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상호작용의 패턴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1SD 점수를 통해 종속변수 추정값을 그래프로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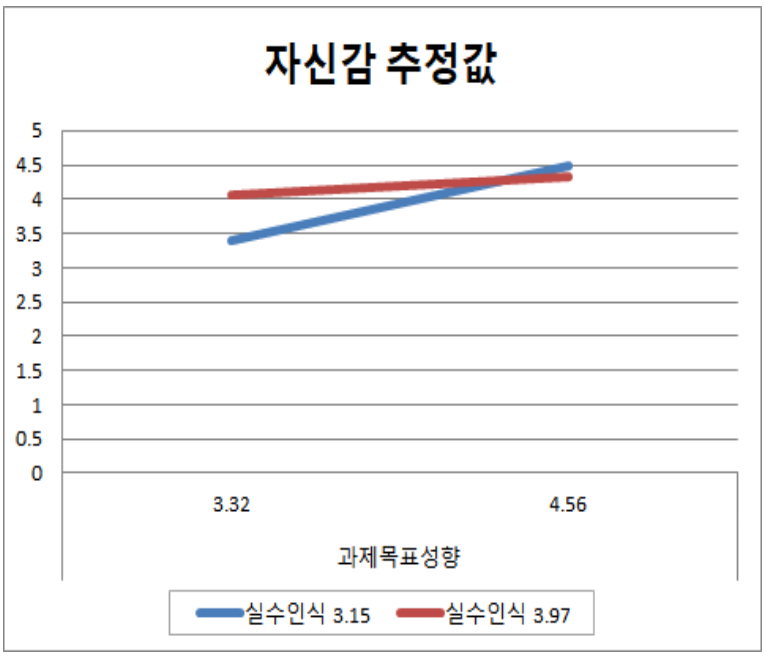

그림 9. 실수인식의 조절효과 그래프(과제목표성향)

<그림-9>에서 볼 수 있듯이, 실수인식이 높은 집단에서는 과제목표성향과 자신감 간의 정적관계가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크기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수인식이 낮은 집단에서는 과제목표성향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감이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 중 자아목표성향과 자신감의 관계에서 실수인식의 조절효과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자아목표성향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수인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17>과 같다.

표 17. 자아목표성향과 자신감의 관계에서 실수인식의 조절효과 (N=300)

구분		자신감				
		β	t	R^2	$\triangle R^2$	$\triangle F$
1	자아성향	.221	6.094***	.111	-	37.131***
2	자아성향	.207	6.069***	.222	.111	42.348***
	실수인식	.400	6.508***			
3	자아성향	.216	6.326***	.234	.011	4.553*
	실수인식	.404	6.608***			
	자아성향×실수인식	-.176	-2.134*			

*p<.05, ***p<.001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과 공차한계(Tolerance: TOL)의 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VIF 값은 1.000 ~ 1.013로 나타났고, TOL의 값은 .987 ~ 1.000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Durbin-Watson 값은 1.881로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다고 간주할 수 있어 해당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아목표성향이 자신감에 미치는 관계에 있어서 실수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표-17>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R^2은 모형 1에서

11.1%, 모형 2에서는 22.2%, 모형3에서는 23.4%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항이 투입된 3단계에서는 23.4%로 설명량이 유의하게 증가(ΔR^2=.011, p<.05)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자아목표성향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수인식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상호작용의 패턴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1SD 점수를 통해 종속변수 추정값을 그래프로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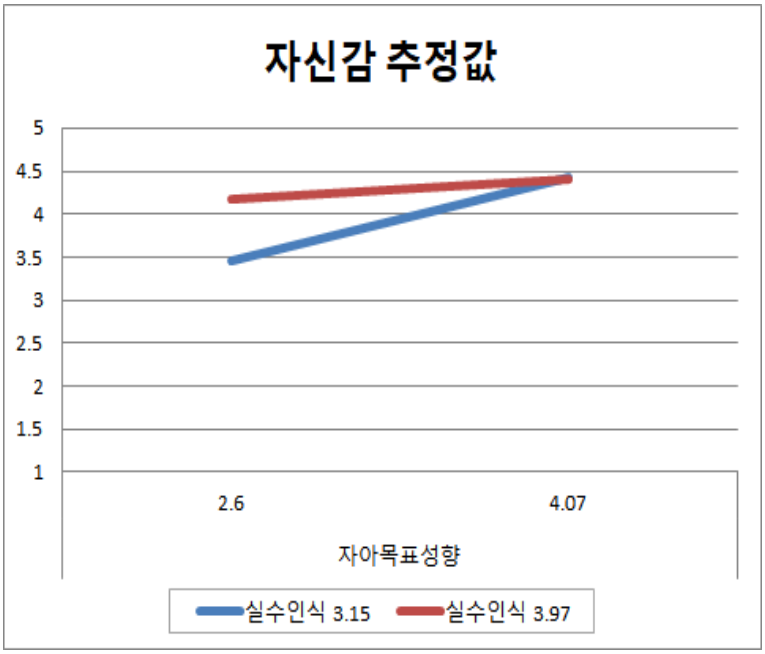

그림 10. 실수인식의 조절효과 그래프(자아목표성향)

<그림-10>에서 볼 수 있듯이, 실수인식이 높은 집단에서는 자아목표성향과 자신감 간의 정적관계가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크기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수인식이 낮은 집단에서는 자아목표성향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감이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5 장 논의

청소년기에 있는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선수생활 중 실력을 향상시키고 발달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Wylleman & Lavallee, 2004)라고 할 수 있으며, 스포츠 상황은 승패가 명확히 구분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훈련상황이나 경기상황에서 일어나는 실수나 실패는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필수불가결한 일이라 할 수 있다(성창훈, 박상혁,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수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 운동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자신감 간의 관계에서 실수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연구의 의미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운동선수의 성별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 차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취목표성향과 자신감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선수가 여자선수보다 자아목표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선수들이 여자선수보다 자아성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kavussanu & Roberts, 2001), 남성이 여성보다 자아성향적 이라는 연구결과들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Kavussanu & Roberts, 1996, 2001; Walling & Duda, 1995). 또한 Nishida(1998)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성취지향성이 낮으며, 실패를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류민정, 표내숙(2007)에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신체활동을 더 선호하며, 실제로 자신이 지각하는 신체적 유능감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성별에 따른 성취목표성향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찾아볼 수 있다(김병준, 2001; 육동원, 신

정택, 2003; Leondari & Gialamas, 2002). 따라서 이러한 차이에 대한 해석은 연구대상의 참여 운동종목이나 학년, 수행수준 등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청소년 운동선수가 참여하고 있는 종목(단체/개인)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 차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실수인식 요인에서 종목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단체종목에 선수들이 개인종목에 선수들보다 실수인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체종목의 선수들이 개인종목의 선수들보다 실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팀 동료들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단체종목에 비해 혼자서 경기를 감당해야하는 개인종목에 경우 실수에 대한 부담이 단체종목의 선수들보다 큰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단체종목과 개인종목에 따른 경쟁특성불안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종목의 선수들이 단체종목의 선수들보다 더 높은 불안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혼자서 경기를 감당해야하는 개인종목의 선수들은 경기 결과의 평가에 대한 위협이 높고 자신의 실력이 곧 경기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며, 경기 중 일어난 실수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Simon & Martens, 1979) 개인종목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의 불안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목 특성에 따라 실수에 대한 인식수준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취목표성향에서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 모두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취지향적인 스포츠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려 하는 유능성의 지각이 자신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 할 수 있으며, 과제와 자아목표성향은 기준에 따른 성취의 의미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성취 지향적인 성향(Elliot & harackiewicz, 1996)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성향 모두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승리와 패배가 공존하는 경쟁적인 스포츠 상황에서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 중 어떠한 목표성향이 더 좋고 더 좋지 않다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선수로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 운동선수들에게 타인과의 비교, 무조건적인 승리보다는 기술의 숙련과 과정을 중시하는 과제목표성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되며, 선수들의 발달시기에 맞는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실수인식 또한 자신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수의 결과적인 측면이 아닌 실수의 교육적 가치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실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지도자 및 부모 등 선수들을 둘러싼 주요타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넷째,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 그리고 자신감 간의 관계에서 실수인식의 조절효과 그래프 살펴보면, 실수인식이 높은 집단에서 대체적으로 높은 자신감 수준을 보였으며, 실수인식이 낮은 집단에서는 대체적으로 낮은 자신감 수준을 보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수인식이 높은 집단 상위 30%, 실수인식이 낮은 집단 하위 30%로 집단을 구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실수인식이 높은 상위 30% 집단에서 자신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수인식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자신감 수준의 차이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감이 높은 선수들이 실수에 대해 긍정적이며 도전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자신감이 낮은 선수들은 실수에 대해 회피적이며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박혜주, 김진구, 정상택 2005; Bandura, 1994) 연

구를 토대로 선수 개인이 실수를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자신감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실수인식이 낮은 집단에서는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감이 향상하는 것으로 그래프가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인인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이 종속변수인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변인인 실수인식이 이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제목표성향, 자아목표성향, 실수인식이 모두 자신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조절변인인 실수인식이 투입되었을 때 각각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절효과 검증의 통계적 결과 해석에 있어서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3단계 회귀식에서 설명량의 변화량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실제 스포츠현장에서의 통계적 크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통계적 유의성과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연구자의 역할임을 고려하여(김계수, 2010), 스포츠 상황에서 실수는 경기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고,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훈련이나 경기상황에서 매번 경험하게 되는 실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선수들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상황에서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실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스포츠 상황에서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확고한 목표성향은 선수들의 최상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지적 요인인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실수인식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 산하기관에 선수로 등록된 300명의 청소년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성취목표성향과 실수인식 그리고 자신감을 측정하였다. 성취목표성향과 실수인식, 자신감을 측정하기 위해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성취목표성향 척도는 자아목표성향 2문항, 과제목표성향 2문항을 제외하여 총 2요인 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실수인식 척도는 4요인 18문항, 자신감 척도는 4요인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300부의 자료를 SPSS 23.0,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빈도분석, 독립표본 t검증, 일원배치 분산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자료분석 방법을 통해 도출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성별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취목표성향 중 자아목표성향에서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신감에서도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종목(단체/개인)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실수인식에서 종목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성취목표성향과 자신감의 관계에서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 모두 자신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수인식 또한 자신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자신감 간의 관계에서 실수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실수인식이 높은 집단에서는 과제목표성향, 자아목표성향, 자신감 간의 정적관계가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크기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수인식이 낮은 집단에서는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감이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제언

본 장에서는 해당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타난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총 300명으로 남자 218명, 여자 8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체종목은 5종목, 개인종목은 6종목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선수의 수와 성별의 비율은 대한체육회의 선수 집계 비율에 따라 설정하였지만, 종목에 따른 표본의 크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은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11종목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모든 종목의 선수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목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종목에 따른 적절한 표본 수를 고려하여 연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성취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과제목표성향, 자아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의 평균점수가 비교적 높은 경향성을 보였으며,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도 크게 나

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공통방법편의라는 측정방법 시 유발될 수 있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공통방법편의는 측정도구의 문제가 아닌 측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의미한다(신명진, 2015). 예를 들어 측정 시 참여자의 기분상태, 측정시기 또는 개인 및 환경적 맥락에 의해 실제의 현상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대상인 연구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한 편향 즉, 사회의 규범이나 기대에 맞춰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이려는 경향으로 실제 자신의 상태와는 다른 방향으로 설문지에 응답했을 확률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과정에서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 설문지 배부, 수거에 대한 관리를 하였지만, 특히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설문지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동료 또는 코치, 감독들에 의한 평가를 인식하거나 스스로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과 절차적 방안들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연구자가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들을 사전에 습득하여 공통방법편의에 따른 연구방법을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실수인식이라는 변인은 주로 산업현장과 교육현장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스포츠 현장에서도 실수는 훈련 상황이나 경기 상황에 있어서 선수들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선수들의 행동, 인지, 정서적 측면은 물론 경기의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스포츠 현장에서 실수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는 상당히 미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 현장에서의

실수인식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심층면담 또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운동선수들에게 있어 실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또는 사회 문화적 요인들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토대로 운동선수들의 실수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실수인식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성취목표성향은 학습자의 실수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신종호, 최효식, 연은모, 홍윤정, 2015) 이를 통해 실수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은 선수를 둘러싼 주요타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운동선수들은 부모, 지도자, 동료선수 등 주요타자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 현장에서도 지도자와 동료선수들은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실수인식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타자로 예상해볼 수 있으며, 지도자가 제공하는 훈련분위기 또는 동료선수들에 의해 제공되는 또래동기분위기 등은 선수들의 실수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라 사료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선수들의 특성적 측면과 함께 선수의 상황적 맥락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실수인식과 경기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스포츠심리학의 궁극적 목적은 선수들의 최상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수들이 실수를 어떻게 인지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선수들의 경기력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추후 선수들은 물론 지도자들에게도 있어 실수의 활용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줌으로써 선수들의 궁극적 목적인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강률(2013).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이 스포츠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대학원.

곽한병, 송민규(2010).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스포츠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19**(2), 411-421.

김계수(2010).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김아름(2011). **사격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스포츠자심감과 경쟁상태 불안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용세, 안효연, 권성호(2018). 개인종목과 단체종목 선수들의 경쟁특성불안 및 운동스트레스와 징크스의존도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57**(2), 39-48.

김원배(1999). 스포츠-자신감 질문지 (SSCQ) 의 타당성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0**(2), 107-122.

김원배(2005). 스포츠와 자신감. 스포츠심리학회편. **스포츠심리학 핸드북.** 서울: 무지개사.

김원배, 홍준희(2001). 고등, 대학 선수의 스포츠 자신감 형성 요인 규명(Ⅱ).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2**(1), 35-50.

김재요, 백정민(2017). 태권도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스포츠자신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스포츠학회지, 15**(1), 211-221.

김종백(2010). 실수-기반 학습의 의미와 교육적 시사점. **교육심리연구, 24**(4), 895-913.

남정훈, 강지훈. (2010). 여가 스포츠 활동 참가자들의 긍정적 태도, 목표성향, 심리욕구, 및 동기와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2), 95-109.

류민정, 표내숙(2007). 스포츠 상황에서의 성취 목표성향과 신체 유능감 정보의 관계. **체육과학연구, 18**(2), 104-116.

문해진(2001). **고교 태권도 선수들의 성취목표지향과 정신건강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일혁, 엄한주, 이기봉(2014). 체육학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이용의 문제점과 올바른 적용.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16**(1), 1-22.

박철우(2009). **고교야구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내적동기와 스포츠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박혜주, 김진구, 정상택(2005). 스포츠 심리상담을 통한 테니스 선수의 자신감 향상 사례연구.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6**(3), 35-54.

배진희(2010). 대학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스트레스 대처의 인과모형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0**(2), 875-885.

설수황, 여인성, 김범준(2013). 중· 고등부 태권도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스포츠자신감 및 인지된경기력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8**(3), 161-172.

성창훈(1995). **성취목표 성향과 목표설정 유형이 동기적 행동 및 운동수행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성창훈, 박상혁(2012). 스포츠 실패내성의 구조 및 정신력과의 다차원적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3**(4), 87-101.

신명진(2015). 스포츠심리학에서 상황판단검사의 필요성과 채점방식에 따른 타당성 비교. **체육과학연구, 26**(1), 73-84.

신연지, 권순형(2019). 축구동호인의 참여동기가 실수인식 및 대인관계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8**(1), 439-448.

신종호, 최효식, 연은모(2014). 학교목표구조, 개인목표성향 및 학업적 자기평가가 학습자의 실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8**(1), 225-249.

신종호, 최효식, 연은모, 홍윤정(2015). 성취지향목표가 학습자의 실수인식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9**(1), 113-133.

신준하(2019). **대학운동선수들의 지각된 코칭 스타일과 성장 마인드셋, 실수인식, 그릿의 인과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신준하, 허진영(2018).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스포츠자신감 및 자기관리 능력이 실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

회지, 27(1), 345-361.
안주미(2007). 에어로빅체조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운동포기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8**(1), 75-90.
양대승(2010). 여자 태권도 품새 선수들의 성취목표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 및 대처방안.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4**(3), 65-75.
연은모(2014). **Relations of classroom goal structure and social relationships to error perception in collaborative learning.**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연은모(2019). 교실성취목표구조, 피드백 유형, 교사 및 친구 관계가 초등학생의 실수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 336-345.
오경록(2010). 여자 대학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스포츠자신감과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4**(3), 225-237.
오아름, 신태섭(2017). 부모학업성취압력이 학습자 실수인식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31**(3), 409-436.
원주연, 김윤태(1998).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 지향성과 내적동기. **자연과학, 9**(2), 95-108.
이양주, 오승현(2012). 고등학교 볼링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스포츠자신감과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 **코칭능력개발지, 14**(1), 35-45.
장세용, 최원민, 강현우(2015).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자신감의 관계에서 운동몰입의 매개효과.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2,** 639-650.
정청희, 김병준(1999). **스포츠심리학의 이해.** 서울: 금광.
정청희, 문창운(1998). 성취목표 성향과 동기적 분위기가 내적동기와 운동수행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98**(1), 1-18.
조민선, 박채희, 이용국, 정현택(2013). 유도 지도자의 리더십이 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스포츠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1**(2), 55-68.

최영옥(1988). **결과 정의 특성 스포츠 자신감이 경기 결과와 귀인 형태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추수진(2011). **대학운동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 및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스포츠심리학회(2005). **스포츠심리학 핸드북.** 서울: 무지개사.

한영웅, 양명환(2013).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스포츠자신감 간의관계에서 자기관리의 매개효과 검증. **해양스포츠연구, 3**(1), 1-20.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황진철(2011). **주니어 골프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스포츠자신감과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Ames, C. (1984). Competitive, cooperative, and individualistic goal structures: A cognitive-motivational analysis. In C. Ames & R. Ames (Eds.), *Research on motivation in education* (Vol.3, pp. 177-207). New York: Academic.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NJ,* 1986.

Bandura, A. (1994). Self-efficacy (Vol. 4).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4,* 71-81.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Macmillan.

Bauer, J., & Mulder, R. H. (2013). Engagement in learning after errors at work: Enabling conditions and types of engagement.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26*(1), 99-119.

Burton, D. (1993). Goal setting in sport. In R.N. Singer, M. Murphey, and L.K. Tennant (Eds.), *Handbook of research on sport*

psychology (pp. 171-201). Chichester, U.K.: Wiley.

Cannon, M. D., & Edmondson, A. C. (2005). Failing to learn and learning to fail (intelligently): How great organizations put failure to work to innovate and improve. *Long range planning, 38*(3), 299-319.

Craft, L. L., Magyar, T. M., Becker, B. J., & Feltz, D. L.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etitive State Anxiety Inventory-2 and sport performance: A meta-analysi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25*(1), 44-65.

Duda, J. L. (1992). Goal: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the study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sport. In R.N. Singer, M. Murphey, & L. K. Tennant(Eds.), *Handbook of research on sport psychology (pp. 421-436)*. New York: Macmillan.

Duda, J. L. (1993). A goal perspective theory of meaning and motivation in sport. *In the 8th World congress of sport psychology proceeding,* Lisbon, Portual.

Duda, J. L., & Chi, L. (1989). The effect of task-and ego-involving conditions on perceived competence and causal attributions in basketball. *Communication to the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pplied Sport Psychology,*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 September.

Duda, J. L., & Nicholls, J. G. (1992). Dimensions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schoolwork and spor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3), 290.

Duda, J. L., & Nicholls, J. G. (1989). The task and ego orientation in sport questionnaire: Psychometric properties. *Unpublished manuscript,* 1-13.

Dweck, C. (1986). Motivational processes affecting learning. *American Psychologist, 41,* 1040-1048.

Elliot, A. J., & Harackiewicz, J. M. (1996).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goals and intrinsic motivation: A mediatio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461.

Feltz, D. L.(1982). Path analysis of the causal in Bandura's theory of self-efficacy and anciety-based model of avoidan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774-781.

Feltz, D. L.(1988). Self-confidence and sport performance. In K. B. Pando If(Ed), *Exercise and sport sciences review* (pp.423-457), New York: MachMllan.

Gill, D.L (1986). *Psychological dynamics of Sport,* Human Kinetics, Champaign, IL.

Gould, D., & Weiss, M. (1981). The effects of model similarity and model talk on self-efficacy and muscular enduranc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1), 17-29.

Gould, D., Weiss, M., & Weinberg, R. (1981).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uccessful and nonsuccessful Big Ten wrestler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1), 69-81.

Griffin, N.S, & Keough, J.F. (1982). A model for movement confidence. In J.A.S Kelso & J. Clark(Eds), *The development of movement control and coordination* (pp. 213-236). New York; Wiley.

Hall, H. K. & Kerr, A. W. (1997). Motivational antecedents of precompetitive anxiety in youth sport. *The sport Psychologist, 11,* 24-42.

Harter, S. (1978). Effectance motivation reconsidered. Toward a developmental model. *Human development, 21*(1), 34-64.

Hetzner, S., Gartmeier, M., Heid, H., & Gruber, H. (2011). Error orientation and reflection at work. *Vocations and Learning, 4*(1), 25-39.

Highlen, P. S. & Bennett, B. B. (1979).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uccessful and nonsuccessful elite wrestler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Sport Psychology, 1,* 123- 137.

Jones, G., & Swain, A. (1995). Predispositions to experience debilitative and facilitative anxiety in elite and nonelite performers. *The Sport Psychologist, 9*(2), 201-211.

Kapur, M. (2012). Productive failure in learning the concept of variance. *Instructional Science, 40*(4), 651-672.

Kavussanu, M., & Roberts, G. C. (2001). Moral functioning in sport: An achievement goal perspectiv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23*(1), 37-54.

Keith, N., & Frese, M. (2008). Effectiveness of error management train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1), 59.

Krane, V., & Williams, J. M. (1994). Cognitive anxiety, somatic anxiety, and confidence in track and field athletes: The impact of gender, competitive level and task characteris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Lannin, J. K., Barker, D. D., & Townsend, B. E. (2007). How students view the general nature of their errors. *Educational Studies in Mathematics, 66*(1), 43-59.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MacCallum, R. C. Zhang, S., Preacher, K. J., & Rucker, D. D. (2002). On the practice for dichotomization of quantitative variables. *Psychological Methods, 7,* 19-40.

Maehr, M., & Nicholls, J. (1980). Culture and achievement motivation: A second look. In N. Warren (Ed.), *Studie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2, 221-267). New York: Academic.

Mahoney, M. J., & Avener, M. (1977). Psychology of the elite athlete:

An exploratory stud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2), 135-141.

Nicholls, J. G. (1984). Achievement motivation: Conceptions of ability, subjective experience, task choice, and performance. *Psychological review, 91*(3), 328.

Nicholls, J .G. (1992). the general and the development and expression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G. Roberts (Ed.),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pp.31-54). Champaign, IL: Human Kinetics.

Nishida, T. (1988). Reliability and factor structure of the achievement motivation in physical education test.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0,* 418-430.

Norman, D. A. (1993). *Things that make us smart: Defending human attributes in the age of the machine.* Basic Books.

Orlick, T. (2000). *In pursuit of excellence: How to win in sport and life through mental training (3rd ed.).* Champaign, IL: Leisure Press.

Reason, J. (1990). *Human error.*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berts, G. C. (1992a). Conceptual Constraints and Convergence. In G. C. Roberts, *Motivation in Sports and Exercise (pp. 3-30).* Champaign, IL: Human Kinetics.

Roberts, G. C. (1992b).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Conceptual constraints and conceptual convergence. In G. C. Roberts(Ed),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Champaign, IL: Human kinetics.

Roberts, G. C., & Duda, J. L. (1984). Motivation in sport: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ability. *Journal of Sport Psychology, 6*(3), 312-324.

Roberts, G. C., Treasure, D. C., & Kavussanu, M. (1996). Orthogonality of achievement goals and its relationship to beliefs about success and satisfaction in sport. *The sport psychologist,*

10(4), 398-408.

Robert, G. C & Treasure, D. C. (1997). Achievement Goal, Motivational Climate and Achievement Strategies and Behaviors in S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6,* 64-80.

Rybowiak, V., Garst, H., Frese, M., & Batinic, B. (1999). Error orientation questionnaire (EOQ): Reliability, validity, and different language equivalence.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0*(4), 527-547.

Schell, K. L., & Conte, J. M. (2008). Associations among polychronicity, goal orientation, and error orient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1), 288-298.

Sideridis, G. D. (2005). Goal Orienta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Depression: Evidence in Favor of a Revised Goal Theory Framework.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3), 366.

Simon, J. A., & Martens, R. (1979). Children's anxiety in sport and nonsport evaluative activitie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2), 160-169.

Smith, D., Wright, C., Allsopp, A., & Westhead, H. (2007). It's all in the mind: PETTLEP-based imagery and sports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9*(1), 80-92.

Treasure, D. C., Monson, J., & Lox, C. L. (1996).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wrestling performance, and affect prior to competition. *The Sport Psychologist, 10,* 73-83.

Vealey, R. S.(1986). Conceptualization of sport-confidence and competitive orientation: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instrument development. *Journal of Sport Psychology. 8,* 221-246.

Vealey, R. S., Garner-Holman, M., Hayashi, S. W., & Giacobbi, P. (1998). Sources of sport-confidence: Conceptualization and

instrument development.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20*(1), 54-80.

Walling, M. D., & Duda, J. L. (1995). Goals and their associations with beliefs about success in and perceptions of the purposes of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14*(2), 140-156.

Weinberg R. S. (1992). Goal setting and motor performance: A review and Critique. In G. Roberts (Ed.),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pp.177-198). Champaign, IL: Human Kinetics.

Weinberg, R. S. & Gould, D. (1996). *Foundation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Human Kinetics, Champaign.

Weinberg, R., Gould, D., & Jackson, A. (1979). Expectations and performance: An empirical test of Bandura's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4), 320-331.

Weiner, B.(1979). A theory of motivation for some classroom experienc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 1.

Weiss, M. R., Wiese, D. M., & Klint, K. A. (1989). Head over heels with success: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performance in competitive youth gymnastics.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White, R. W. (195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5), 297.

Williams, L. (1994). Goal orientations and athletes' preferences for competence information sources.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6,* 416-430.

Wuttke, E., & Seifried, J. (Eds.). (2011). *Learning from errors at school and at work.* Verlag Barbara Budrich.

Wylleman, P., & Lavallee, D. (2004).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transitions faced by athletes. *Developmental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A lifespan perspective, 507-527.

부록 1. 성취목표성향, 실수인식, 자신감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실수인식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답변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개별적으로 분석되거나 유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답변은 무기명으로 작성되어 수집된 자료는 통합된 결과만이 분석에 사용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습니다.

더불어 본 설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해 옳고 그름이 없으며, 응답자 여러분이 느끼는 생각을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대학원 스포츠심리학전공 이승주
(000-0000-0000 / --------@snu.ac.kr)

☞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연관 지어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를 해주시거나 내용을 기입해주십시오.

1. 성별 : ① 남 ② 여

2. 종목 : ( ) (예 : 축구)

3. 운동 경력 : (20 년) ~ 현재; ( ) 년째

4. 학년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출생연도:)

5. 개인 입상경력: ① 시대회 ② 도대회 ③ 전국대회 ④ 세계대회 ⑤ 없음

6. 단체 입상경력: ① 시대회 ② 도대회 ③ 전국대회 ④ 세계대회 ⑤ 없음

☞ 다음은 성취목표성향에 대한 질문지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 혼자만이 어떤 플레이나 운동기술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많이 연습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동료보다 더 잘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4	남들이 나 만큼 못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5	재미있는 무엇인가를 배울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애들은 실수를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7	땀 흘려 노력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8	정말로 열심히 연습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 혼자서 득점을 거의 다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0	무엇인가를 배우고 좀 더 많이 연습을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일등을 하거나 제일 잘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2	배운 운동 기술을 제대로 했다고 여겨질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3	최선을 다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여러분이 실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파악하기 위한 실수인식 질문지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실수는 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실수는 내가 훈련을 계속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실수는 내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실수 덕분에 나의 실력 향상에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5	운동을 잘 하고 싶다면,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6	가만히 있는 것보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실수를 하는 것이 낫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실수를 받아들이겠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수하는 것을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실수를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실수를 할까봐 자주 두려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실수를 하면 당혹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2	시합 상황에서 실수를 하면 나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3	시합을 하는 동안 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하지는 않았는지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실수를 한 후, 실수를 어떻게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어떻게 하면 실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종종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시합을 하는 동안 무언가 잘못되면 나는 그것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실수를 한 후, 나는 어떻게 실수를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해 오랫동안 신중하게 고민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실수가 발생하면, 나는 실수에 대해 철저히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여러분의 스포츠자신감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운동하는 것에 집중이 잘 될 때 자신감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팀 동료들로부터 격려나 칭찬을 받았을 때 자신감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유능한 지도자 밑에서 운동할 때 자신감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선수보다 운동을 잘 했을 때 자신감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지도자의 예측이 믿을 만할 때 자신감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운동 기술을 향상시켰을 때 자신감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믿음직한 선수라고 말할 때 자신감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지도자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자신감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상대편보다 경기를 더 잘했을 때 자신감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나의 목표에 집중이 잘 될 때 자신감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코치와 가족이 격려해줄 때 자신감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지도자의 결정에 믿음이 갈 때 자신감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상대방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자신감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신체적 / 정신적으로 시합을 잘 준비하였을 때 자신감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코치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 자신감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 **수고하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Effects of Adolescent Athlete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Perception of error on the Confidence

Seung joo Le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perception of error of adolescent athletes on the confidence. also this study will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confidence of adolescent athletes. A total of 300 adolescent athletes completed a paper survey. and the data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tudy after verifying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questionnaire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in ego goal orientation. als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onfidence depending on gender.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error depending on the events(group/individual) participation in which of adolescent athletes. Thir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ego/task)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nfidence. also perception of erro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nfidence. Finally, the results of verifying the regulation effect of error perception in relation to th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task/ego) and confidence of adolescent athletes showed that in group with high perception of error, it was shown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sk goal orientation, ego goal orientation and confidence improved, but the effect was in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in group with low perception of error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task goal orientation and ego goal orientation the higher confidence was improved.

Key-words: adolescent athlete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perception of error, confidence

Student number: 2018-21840